

## “수신료 분리징수 철회하면 사퇴 대통령 면담 요청”

김의철 사장은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가 철회되면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6월 8일 본사 아트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사장직을 내려놓겠다”며 “대통령께서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즉각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분리징수 추진을 철회하는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한 뒤,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KBS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수신료 징수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대통령실 국민제안’ 관련 KBS 사장 기자회견문

### 공영방송의 근간을 뒤흔드는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철회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KBS 사장 김의철입니다.

지난 6월 5일, 대통령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법령 개정 및 후속조치, 그리고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방안 마련을 권고하였습니다. 우선 이번 국민제안과 관련하여, KBS의 경영을 책임지는 사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KBS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질책으로 이해하고 다시 한 번 성찰하고 노력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 • 분리징수 권고 결정은 내용과 절차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권고안 결정에 있어, 사회적 제도로서 공영방송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깊은 성찰과 고민이 있었는지, 다양한 시각을 지닌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충분한 논의를 진행했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3월 9일 국민제안 토론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수신료의 의미와 가치는 물론, 통합징수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를 누락했습니다. 세금으로 대체되는 프랑스의 수신료가 마치 대안도 없이 폐지된다는 식으로 해외 수신료 제도에 대해 오해를 유발하는 정보까지 제공했습니다. 또한 언론에도 보도됐듯이, 중복 투표 가능성 등 절차상의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정확하고 불충분한 여론 수렴 절차로 인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안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심사위원회가 여러 차례의 활발한 토론과 격렬한 논쟁을 거쳐 이번 권고안을 결정했다는 소식은 접한 바 없습니다. 심지어 공영방송의 근간이 흔들리는 중차대한 사안을 두고 KBS는 논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었으며, 별도로 의견을 물어 온 바도 없었다는 점은 무척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동 건과 관련한 KBS의 입장 전달은 심사위원회의 요청도 없이 KBS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의견서가 전부입니다.

#### • KBS는 최저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사회적 제도입니다. 대통령실의 설명과는 달리, 오히려 각국에서는 글로벌 OTT의 범람에 따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공영방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보수당 정부는 지난 3월 글로벌 OTT와 공영방송 사이의 비대칭 규제 해소 등을 골자로 하는 공영방송사 경쟁력 제고 법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KBS는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조직이라는 국민들의 비판이 적지 않다는 점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런 고정관념과는 다르게 KBS는 낮은 비용과 적은 인력으로 세계 우수 공영방송사와 대등하게 경쟁하며 공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40년째 동결 중인 수신료가 2,500원으로 결정됐던 1981년에 비해 2022년 대한민국의 1인당 GDP는 17배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동안 정제된 수신료와 물가 상승률 사이의 괴리는 굳이 설명드릴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과 1인당 GDP 수준이 비슷한 이탈리아의 수신료는 KBS의 4배가 넘습니다. 일본은 4.8배, 영국은 8.6배, 독일의 수신료는 10.6배에 달합니다. 직원 수를 비교해본다면, 독일의 ARD/ZDF가 3만3천 명, 영국 BBC는 약 2만 명, 일본 NHK는 1만 명이 넘지만, KBS는 4천여 명대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V 도달률은 KBS가 68.5%로, 프랑스나 독일 공영방송사의 약 67% 수준보다 높고 BBC의 71.6%보다 약간 낮은 정도입니다. KBS가 방만하고 비효율적이라는 고정관념과는 달리, 주요 공영방송사들과 정량적 수치로 비교한 KBS의 저비용, 고효율은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물론, KBS의 경영이 방만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항상 겸허한 자세로 돌아보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9년 4,726명이던 직원 수를 2022년 4,151명으로, 불과 3년 만에 12% 이상 감축하였으며, 인건비 비율은 그보다도 높은 15% 이상 감축시켰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이정도 수준의 공영방송 인력 감축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지난 10년간 KBS 직원의 연 평균 임금 인상률은 1.64%에 불과하며, 이는 동 기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연 평균 인상률 3.7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소중한 수신료 수입으로 KBS는 한민족방송, 국제방송, 장애인방송 등 다양한 공영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하드라마, 고품격 다큐멘터리,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같은 대형 이벤트처럼, 수익성은 낮지만 대자본 투입이 필수적인 프로그램들을 제작하여 상업방송이 범접할 수 없는 공영방송만의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고품격 문화 향유를 위한 KBS 교향악단과 국악관현악단의 운영, 한국어 연구 및 진흥사업, 소외계층을 위한 난시청 해소와 수신환경 개선, 그리고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선도할 방송기술과 방송문화 연구 등 R&D 투자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류라는 단어가 생소했던 20여 년 전부터, 이미 <겨울연가>, <뮤직뱅크> 등으로 K-Culture의 바탕을 다졌던 것도 KBS입니다.

#### • 분리징수 추진은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하는 조치입니다.

초 저비용의 경제적인 수신료로 위와 같은 공적 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건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바로 수신료 징수 비용을 최소화 하고, 수신료를 최대한 낭비 없이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통합징수 방식은 최저의 징수 비용으로 최고의 징수 효율을 실현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납부자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구현하여 납부 정의를 실천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식입니다.

만약 분리징수가 현실화 될 경우, 고품격 콘텐츠 제작에 투입되어야 할 수신료는 막대한 징수 비용 지출로 의미 없이 낭비될 것입니다.

2022년, 징수 비용을 제외하고 6,200억 원 정도인 순 수신료 수입은, 분리징수 시 1,000억 원대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국민들께서 KBS에 부여한 다양한 공적책무들을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직결됩니다. 결국 분리징수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갈 것입니다. 과연, 수많은 불합리와 문제점을 감수하면서까지 분리징수를 추진해야 할 만큼 중대하고도 긴급한 사유나 실익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논의는 단순한 징수 방식 변경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공영방송이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는, 지극히 민감하고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권고안에서도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방안 마련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역행하는 최악의 비효율적인 재원 충당 방식을 채택하겠다는 것은 사회적 비용 낭비와 갈등만 키우는 모순적인 선택일 뿐입니다.

KBS는 단순히 TV 화면으로만 보여지는 일개 방송사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와 문화창달,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법에 의해 다양한 책무와 권한이 부여된 사회적 제도입니다. TV와 스마트폰 화면 밖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KBS가 수많은 사업들을 수행하는 것은 그 의무를 다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KBS의 근간을 와해시킬 수 있는 사항이, 단지 인기투표 같은 추천수와 댓글들을 근거로 결정된다는 것은 결코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한번의 의견청취로 공영방송 재원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정부 차원의 권고 결정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급한 결정을 내리게 된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대통령실에 묻고 싶습니다.

▪ **분리징수 추진을 철회해 주십시오.**

저는 KBS가 어떠한 정치적, 상업적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진정으로 독립적

인 공영방송이 되는 데 온몸을 바치겠다는 일념으로 사장직에 지원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 세월 정권이 바뀔 때마다 KBS는 늘 외풍에 시달려왔고, 그때마다 KBS 구성원들은 국민과 함께 공영방송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역사가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실의 분리징수 추진은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이 위중한 상황 앞에 저는 KBS 사장으로서는 무거운 결심을 했습니다.

만일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제가 사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니 대통령께서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뒤흔드는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이 철회되는 즉시, 저는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또한 아시아 공영방송을 대표하는 KBS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대통령님과의 면담을 정식으로 요청 드립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에 따라 해당 업무를 담당할 유관 부처에도 제안 드립니다. 방송법에 명시된 수신료 징수의 실질적인 주체는 KBS입니다. 따라서,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논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KBS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KBS는 수신료의 가치가 충실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하겠습니다.

KBS는 국민들께서 주시는 수신료가 어떤 의미인지, 또 얼마나 소중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국민들께 감사드리며, 수신료의 가치를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는 것은 언제나 KBS 구성원의 자상과제입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지적과 질책에는 깊이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뼈를 깎는 성찰과 혁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지금의 수신료 통합징수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성을 구현하는 최선의 방식이라는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넓은 양해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6. 8.

KBS 사장 **김의철**

## 기자회견 주요 질의응답

**Q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를 철회하면 즉시 사퇴하겠다는 것은 정권 교체에 따른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는 게 아닌가?**

정부가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통해서 공영방송의 근간인 재원을 흔들고 있는데, 그러면 KBS는 공적 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위기를 맞게 된다. 수신료 분리징수가 실제로 현실화된다면 공영방송의 존립 근거가 훼손되는 것이다. KBS 사장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임무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막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시점에서 공영방송 KBS를 지키기 위해서 사장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로 어떤 게 있을까 고민했다. 공영방송 독립은 사장 한 사람의 몫은 아니며 KBS 사장 혼자만이 지켜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가 철회돼 제가 물러나더라도, 저는 KBS 구성원들을 믿으며 KBS가 방송독립을 유지하고 공영미디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Q 대통령실이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온라인 토론을 이끌며 분리징수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 같다. 다른 나라의 수신료 제도 변화에는 얼마나 시간이 소요됐나?**

KBS가 모델로 삼고 있는 유럽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공영방송사가 57개 정도인데 재원 문제로 다들 고민 중이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온라인 토론 방식으로 제도를 바꾸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 수신료 제도 변화는 서비스의 중단 없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등의 고민이 필요하며 한순간에 바꾸기 어려운 문제다. 핀란드의 경우 수신료 전담기구를 만들고 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4년

정도, 독일은 수신료 징수기관을 바꾸는데 10년 넘게 걸렸다. BBC도 2022년 수신료 제도 논의를 시작해 10개의 재원 모델을 두고 2027년까지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해외의 공영방송사 가운데 현재 KBS의 상황처럼 갑작스럽게 진행한 사례는 보기 어렵다.

**Q 수신료 분리징수가 국민들에게 가져다줄 편익은 있는가?**

국민 일부에게 선택권 관련 편익은 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영방송 수신료는 직접 그 길을 달리지 않더라도 사회기반시설로서 필요한 도로와 같은 역할을 한다. 우리 사회에 기본적인 정보와 오락, 지식을 제공하는 것 같은 편익은 현재의 통합징수를 통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즉, 징수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콘텐츠 제작과 서비스 제공에 투입됐어야 할 비용이 그만큼 더 징수 비용으로 치환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편익은 줄고 사회적 비용만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Q KBS가 제안한 수신료 협의체에서 다들 논의 사항에는 무엇이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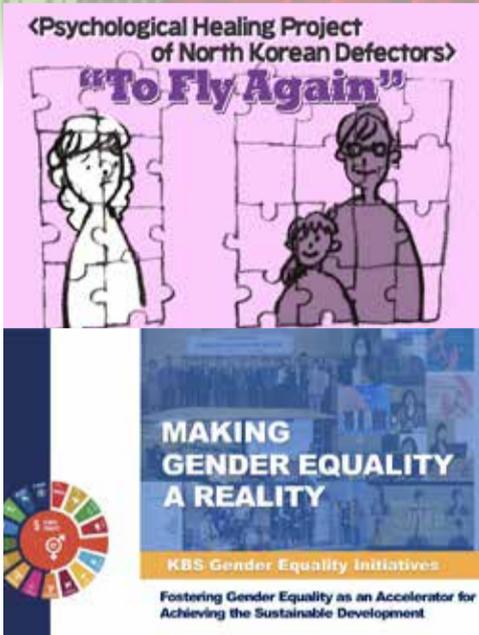
현재 대통령실 권고안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만 권고하는 형태라, 기본적으로 수신료의 징수 주체인 KBS가 빠져있다. 따라서 제대로 수신료 협의체를 가동해, 수신료 전반과 공영방송 체계에 대해 그리고 공영방송의 역할과 서비스, 재원 문제 등도 종합적으로 논의해보자는 생각이다.



# KBS <성평등 이니셔티브>, AIBD 국제미디어상 수상

## 성평등 증진 노력 인정 받아 '지속가능성 부문'서 상 받아

### 라디오 다큐 <다시 날자>는 '라디오 프로그램 부문' 수상



KBS가 국내 미디어업계 최초로 도입한 '성평등센터'의 추진 성과를 담은 <성평등 이니셔티브>가 아시아태평양 방송개발기구(AIBD)의 국제미디어상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 Green Technology) 부문'을 수상했다. AIBD 국제미디어상 '지속가능성 부문'은 올해 처음 신설된 상이다.

KBS는 2018년 성평등센터를 설치한 이후 성평등 연례보고서 발간, 성평등 실태조사 등을 통해 성평등과 다양성 증진을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여왔다. 2020년에는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강화된 성인지 감수성이 반영되도록 했고, 2022년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방송 출연진 성비 불균형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성평등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다. 또한 공영미디어로서 방송 콘텐츠에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AIBD 국제미디어상 심사위원단은 "KBS가 타사와 달리 내부에서 주도적으로 양성 평등, 다양성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서영주 KBS 성평등센터장은 "이번 수상은 성평등과 다양성 증진을 위한 KBS의 노력이 인정받은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 2030'의 실천과 성평등과 다양성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ABU 총회에서도 '우먼 워드 더 웨이브' 프로그램을 통해 아시아 주요 방송사들과 KBS 경험을 공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준비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민족방송 특집 다큐멘터리 <다시 날자 : 북한이탈주민 심리치유 프로젝트>(이하 <다시 날자>)는 '라디오 프로그램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다시 날자>는 새터민 여성 300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설문 조사 결과와 심층 인터뷰,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제작된 2부작 프로그램으로 2022년 국제라디오TV연맹(URTI)이 개최한 제33회 URTI 라디오 그랑프리에서 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연출을 담당한 황형선 PD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탈북자들은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더욱 고립되었다"며 "함께 사는 방법을 그들에게 찾이라고 강요할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함께 고민하는 게 더 평화로운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AIBD 국제미디어상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우수한 방송 프로그램과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알리기 위한 국제상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잠시 중단되었다가 올해 재개됐다.

연출을 담당한 황형선 PD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탈북자들은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더욱 고립되었다"며 "함께 사는 방법을 그들에게 찾이라고 강요할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함께 고민하는 게 더 평화로운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AIBD 국제미디어상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우수한 방송 프로그램과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알리기 위한 국제상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잠시 중단되었다가 올해 재개됐다.

## KBS만의 첨단 기술 빛 발한 '누리호 3차 발사' 중계방송

5월 25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가 성공하는 역사적인 순간은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돼 우리 국민들에게 큰 자부심과 감동을 선사했다. 이번 중계방송에서 KBS는 그동안 축적된 제작 경험과 노하우, 첨단 기술을 선보이며 발사 중계방송의 차원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중계방송에서 가장 돋보였던 점은 바로 헬기에서 촬영한 영상이었다. 나로우주센터에서 25Km 떨어진 거금도 인근의 고도 1.5Km 상공에서 KBS 헬

기에 장착된 첨단 UHD 카메라로 잡은 누리호의 모습을 보여준 것. 이 장면은 KBS 중계방송과 유튜브 채널에만 제공됐는데, 지상에서 촬영한 영상과는 확연히 차별화된 것이어서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특히 발사 중계 사상 헬기를 활용한 촬영은 KBS가 처음이었다. KBS는 지난해 누리호 2차 발사 때에도 자체 개발한 '카메라 미세조정 원격프로그램'과 '로켓 자동추적 신기술' 등을 적용해 고품질의 중계방송을 제공한 바 있다.

### I·N·T·E·R·V·I·E·W

철저한 사전 준비로 차별화된 KBS만의 중계방송을 만들어 낸 최호경 감독으로부터 '누리호 3차 발사' 중계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Q 누리호 3차 발사 중계 시 가장 중점을 뒀던 점은?

로켓 발사 중계는 흔하지 않고 눈앞에서 잘나는 순간에 벌어지는데 리허설도 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라서 발사 순간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앞선 두 번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역시나 끝까지 모니터에서 눈을 뗄 수 없었죠. 방송사들이 똑같이 제공 받는 Pool 영상 외에 특별한 것이 없을까 계속 고민했고 이를 KBS만의 특수 리소스인 헬기가 촬영하는 4K

영상과 제주도에서의 추적 그림, 8K 초고화질캠과 멀티캠 등으로 차별화하고자 했습니다.

리가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여건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KBS가 원격제어, 광전송장비, 통신장비 등을 선도적으로 설계하고 활용해 리모트 프로덕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바로 KBS만의 기술적 노하우이고 저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Q KBS의 차별화된 기술 구현 과정에서 어려움은?

국내 로켓 발사는 아직 생소하지만, 유튜브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해외의 우수한 로켓 발사 장면을 지켜봤기 때문에 시청자의 눈높이는 아주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우리도 해외 발사체 중계 이상의 중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직은 기술 유출 등 여러 민감한 문제로 인해 카메라 설치 위치 등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에 대한 간극을 좁히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또한 안전상의 문제로 발사대 근처에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서 직선거리로 2Km 이상 떨어진 통제동까지 영상 및 제어 신호를 광회선으로 전송해야 하는데, 발사대의 모든 시스템이 방송이 아닌 발사 자체에만 맞춰져 있는 관계로 발사대에서 오는 광회선의 수량이나 접속 위치 등을 우

#### Q 중계 관련 대내외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 속에서, 앞으로의 계획은?

세계의 방송 환경은 점차 현장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스포츠는 물론, 유수의 대형 이벤트 관련 방송은 스튜디오가 아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고, 그 규모도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대형화되고 있는데 그에 걸맞은 수준 높은 중계 제작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는 향후 대형 UHD 중계차 도입, 제작방식의 IP화 등을 통해 중계방송의 수준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누리호 3차 발사 중계나 지난해 국군의 날 중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도전에도 늘 혁신적으로 앞장서 국민들에게 보다 더 생생한 현장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 ‘재난 극복’ 리얼리티 예능 생존게임 코드레드



### 재미와 정보를 한꺼번에! KBS표 생존 예능

〈생존게임 코드레드〉는 재미와 정보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다양한 가상의 재난 상황에 놓인 출연진들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을 흥미진진하게 지켜보면서,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여타의 서바이벌 예능과는 달리, 돈이나 명예 같은 개인의 이익이 목적이 아니라 재난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꼭 필요한 생존 매뉴얼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된 만큼 공익적인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연출을 맡은 고세준 PD는 “〈생존게임 코드레드〉는 KBS가 야심차게 준비한 재난 안전 프로그램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 “출연진들의 캐릭터와 케미를 중심으로 시청하면 훨씬 더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화려한 서바이버들의 활약... 기대감 UP

6월 3일 첫 방송에서는 납치 상황에 처한 6명의 서바이버들이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특전사 출신 가수 박군, 스피드스케이팅 전 국가대표 선수 모태범, 유도 전 국가대표 선수 조준호, 배우 문수인, 해군 출신 유튜버 짱재, 개그맨 곽범은 그동안 각자 쌓아온 경험과 지식, 신체적 능력과 담력 등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극한의 상황을 헤쳐나가는 과정을 가감 없이 보여줬다. 뜨거운 열정을 가진 6명의 서바이버들은 앞으로도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생존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아나운서 배성재와 〈피지컬: 100〉에서 활약했던 홍범석, 유튜버 이승국은 스튜디오 MC로서 서바이버들의 생존 플레이를 박진감 넘치게 중계하는 동시에 생존을 위한 정보를 흥미롭게 풀어내 설명함으로써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10분 예정 **KBS**

## 마이리틀 '히어로'

뜨거운 반응 속 순항!



방송 전부터 큰 화제를 모았던 가수 임영웅의 단독 리얼리티 예능 〈마이리틀 히어로〉가 ‘명불허전’임을 입증하고 있다.

총 5부작 중 3회까지의 평균 시청률이 6%(닐슨코리아 전국 기준)를 넘기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시청자들의 반응 또한 뜨겁다.

프로그램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 “가슴 뭉클하다”, “힐링 예능이다”, “KBS 예능에서 만나 더 반갑고 KBS에 감사하다” 등 시청자들의 칭찬과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마이리틀 히어로〉는 지난 2월에 있었던 임영웅의 첫 해외 콘서트 ‘아임 히어로 인 로스앤젤레스(IM HERO - in Los Angeles)’ 준비 과정과 공연 모습을 담아낸 프로그램으로, 무엇보다 그동안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임영웅의 솔직하고 진솔한 일상을 보여주며 ‘임영웅 백과사전’ 같은 프로그램이라는 평을 얻고 있다.

매회 임영웅의 인간미 넘치는 매력을 선사하고 있는 〈마이리틀 히어로〉의 남은 이야기인 4회와 5회는 6월 18일과 25일 밤 9시 25분 2TV에서 이어진다.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스포츠, 즐기는 사람이 바로 챔피언!



2019년 시즌1과 2020년 시즌2에 이어 최근 시즌3가 방송된 <즐거운 챔피언>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스포츠를 즐기는 문화를 만들어보자는 '선한 목표'를 지닌 프로그램이다. 연출자인 손성권 PD와 <즐거운 챔피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손성권 PD

**Q 어느새 시즌3까지 방송됐다. 시즌1은 2019년에 방송됐는데, 처음에 어떻게 기획하게 됐는지?**

기존 장애인 스포츠 프로그램의 틀을 벗어나, 대중에게 화제가 되는 장애인 스포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자 했다. 연예인들이 장애인 스포츠에 도전하는 내용을 담아보자는 취지로 제작한 것이 시즌1이었고, 장애인이 비장애인에게 도움받는 것이 아닌, 그 반대의 상황을 연출하고 싶었다. 보통은 장애인 스포츠 프로그램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는데, 기존과는 달리 최대한 장애인 스포츠 프로그램처럼 보이지 않게 차별화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했다. '장애인'이 아닌 '스포츠'에 포커스를 맞췄다.

**Q 시즌3까지 이어 오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텐데, 원동력은 무엇이었나?**

<즐거운 챔피언> 시즌1과 시즌2의 반응이 좋았다. KBS인이라면 기본적으로 공영성을 마음에 두고 있고, 공영성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하는 본능이 있을텐데 나 역시도 그러한 KBS인의 DNA가 있는 듯하다. 특히 올해는 공영방송 50주년을 기념해 <즐거운 챔피언> 시즌3를 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프로그램을 적극 제안할 수 있었다.

**Q 프로그램 기획자로서 손 PD가 그리는 '즐거운'**

스포츠라는 게 원래 경쟁을 해야 하기에 장애인 스포츠에서도 경쟁이 있고 순위가 있지만, 그럼에도 '즐기는 사람이 챔피언'이라는 의미가 있다. 즉 대회에서 우승해도 챔피언, 대회에 출전해도 챔피언, 관심을 갖고 응원만 해도 챔피언인 것이다. 장애인 스포츠는 우리가 익숙지 않은 분야이기에, 관심을 갖고 응원하고 즐기는 사람이 바로 챔피언이라는 의미를 담고자 했다.

**Q 시즌별로 조금씩 차별점을 둔 것 같은데, 시즌별로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인가?**

시즌1은 볼링과 럭비 종목을 중심으로 기존 대회(서울시장배)에 단순 참가해보는 체험에 집중했다면, 시즌2는 신나고 화려한 댄스스포츠 공연 대회(장애인 댄스스포츠 명예 국가대표 선발전)를 통해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국가대표가 된다는 명분까지 부여했다. 시즌3에서는 아예 'KBS배'라는 이름을 걸고 상금까지 수여하는, 세상에 없는 대회(2023 KBS배 어울림픽)를 만들었다. 하지만 세 시즌을 관통해서 <즐거운 챔피언>을 통해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크게 다르지 않다. 장애인 스포츠가 첫째,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라는 편견을 깨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것임을 알리고, 둘째로 장애인은 비장애인의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셋째로는 장애인이 하는 스포츠는 조용하고 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데 오히려 더 격렬하고 스피디한 스포츠라는 것, 마지막으로 아직도 장애인이 누릴 수 있는 스포츠 인

**Q 시즌3에서는 아예 'KBS배'라는 이름을 걸고 상금까지 수여하는, 세상에 없는 대회(2023 KBS배 어울림픽)를 만들었다. 하지만 세 시즌을 관통해서 <즐거운 챔피언>을 통해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크게 다르지 않다. 장애인 스포츠가 첫째,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라는 편견을 깨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것임을 알리고, 둘째로 장애인은 비장애인의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셋째로는 장애인이 하는 스포츠는 조용하고 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데 오히려 더 격렬하고 스피디한 스포츠라는 것, 마지막으로 아직도 장애인이 누릴 수 있는 스포츠 인**

프라는 부족하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전하고 싶었다.

**Q <즐거운 챔피언>을 제작하면서 어려웠던 점, 그리고 뿌듯했던 점은?**

시즌3에서는 KBS의 이름을 걸고 세상에 없던 기념비적인 대회를 만들었고 이 대회에 출전하는 과정을 그렸다. 상금이 걸린 새로운 정식 대회이다 보니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 했고 대회를 운영하는 각종목 연맹 및 협회와 수없이 의견조율을 해야 했던 점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장애인 선수들과 가족들이 "KBS가 이런 대회를 만들어주셔서 정말 고맙다"며 "내년에 또 해주세요"라고 감사 인사를 할 때 보람을 느꼈다. 또한 <즐거운 챔피언>을 통해 장애인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기뻐다.

**Q <즐거운 챔피언>은 앞으로도 계속되는지? 스포츠 PD로서 앞으로 제작하고 싶은 프로그램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즐거운 챔피언>이 KBS에서 만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 프로그램으로 쪽 유지되면 좋겠다. 시즌3에서 새로운 국내 장애인 스포츠 대회를 만들어봤기에, 다음에는 인종과 국적에 상관없이 국제적인 대회로 키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일례로 장애인 댄스 스포츠의 경우 고품격 공연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궁극의 목표는 올림픽과 패럴림픽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팀을 이루어 함께 하는 어울림 픽으로 키워보고 싶다.

정덕현의 TV 읽기

## <어쩌다 마주친, 그대> KBS에 어울리는 세대 통합적 장르의 좋은 예



정덕현  
문화평론가

우리는 가족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매일 같이 가깝게 지내고, 그래서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는 게 별로 없을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가족 아닐까. 특히 자식들이 생각하는 부모가 그렇다. 자식들이 인지하기 시작할 때 부모는 이미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상황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그들이 젊어서는 어떤 꿈을 가졌었고 그 꿈을 이뤘는지 혹은 좌절됐다면 무엇이 그렇게 만든 것인지를 자식들은 잘 모르기 마련이다. KBS 월화 드라마 <어쩌다 마주친, 그대>는 바로 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가족의 진짜 모습을 찾아 떠나는 드라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어쩌다 마주친, 그대>는 타임머신이라는 판타지를 활용한다. 어떤 터널에서 우연히 마주하게 된 울드카. 호기심 때문에 그 차를 타고 터널을 통과한 윤해준(김동욱 분)은 이것이 시간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타임머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시간을 뛰어넘어 미래에 갔다가 누군가에게 살해된 자신을 발견한 해준은 그 미래를 바꾸기 위해 자신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이 처음 사건을 저질렀던 1987년으로 돌아가 아예 사건의 싹을 잘라버리려 한다.

한편 백윤영(진기주 분)은 엄마 이순애(이지현 분)의 갑작스런 사망에 충격을 받아 절망한 채 바로 그 터널 앞으로 왔다가 해준의 시간여행에 동참하게 된다. 망가진 자동차를 수리하면 쉽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해준처럼 운영 또한 1987년에 머무르려 한다. 고등학생이던 엄마 순애를 만나고 자신의 가족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그들이 몰랐던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그것이 가족의 삶을 뒤틀어지게 했다는 걸 알게 되어서다. 순애는 그 시절 문학소녀였고 소설가를

꿈꾸었다. 그런데 순애가 그때 쓴 글들이, 현재의 윤영이 출판사 편집자로 일하며 모시고 있는 베스트셀러 작가 고미숙(김혜은 분)의 소설에 그대로 인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윤영은 젊은 날부터 글을 도둑질당하면서 꿈을 잃게 된 엄마 순애와 도둑질을 통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고미숙 사이에 벌어진 사건들을 추적해 바로잡으려 한다.

<어쩌다 마주친, 그대>는 시간여행이라는 판타지적 설정을 기본으로 하지만, 그 서사에서 두드러지는 건 가족극이다. 과거로 돌아간 윤영은 엄마 순애와 친구가 되고 그에게 벌어지는 비극들을 막기 위해 인간힘을 쓰면서 엄마가 꾸었던 꿈들을 알아가게 된다. 1987년의 시대 상황이 그러지기 때문에 시대극이 갖는 복고적인 특징들도 드라마 곳곳에 묻어난다. 송골매의 노래 제목에서 따온 드라마 제목처럼 간간히 들려오는 옛 노래들과 당대의 유행했던 패션, 소품 등이 주는 추억과 향수가 드라마를 가득 채운다. 여기에, 연쇄살인을 막기 위해 해준과 윤영이 진범을 찾는 추리가 펼쳐진다. 의심했던 이들이 사실은 진범이 아니었고, 또 다른 인물이 용의자로 올라오면서 시청자들은 과연 누가 범인인가를 추측해가며 몰입하게 된다.

하지만 이 드라마가 가진 강력한 판타지는 이러한 추리 요소보다는 공영방송에 어울리는 세대 통합적인 가족 서사에서 나온다. 어찌 보면, 이 시대에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가족극이라는 장르를, 판타지를 통한 시대극이라는 장치를 이용해 끌어왔다고나 할까. 이를 통해 <어쩌다 마주친, 그대>는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들을 동시에 끌어들이는 방식. 어찌보면 KBS 드라마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 이런 것이 아닐까 싶다.

# OTT에도 저널리즘이 있을까?



유건식  
제작기획2부/언론학 박사

지난 3월 3일 공개된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와 <국가수사본부>가 MBC의 <PD 수첩>이나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와 같은 기존 저널리즘 프로그램보다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경찰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면서 일부 언론에서 'OTT 저널리즘'이란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5월 커버스토리 주제로 'OTT 저널리즘'을 다뤘다. 새롭게 등장한 용어 'OTT 저널리즘'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 'OTT 저널리즘'이란?

<나는 신이다>와 <국가수사본부>가 지닌 저널리즘적 기능과 관련해 미디어오늘은 3월 22일자 기사에서 'OTT 저널리즘'은 보도 영역에 있는 OTT 콘텐츠에도 저널리즘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최근 논의에서 나온 단어이며, 현직 PD들이 만든 다큐멘터리를 OTT에 유통하며 기존 지상파에서의 제작을 극복해 기존 PD저널리즘에 심층성을 더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글 트렌드(trends.google.com)에서 'OTT 저널리즘'을 검색하면 관련 내용이 없다고 나오고, 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인 빅카인즈에서도 3월 들어 일부 기사가 검색될 뿐이다. 이를 보면 'OTT 저널리즘'은 두 편의 다큐멘터리가 공개된 최근에만 일부 사용되고 있는 용어임을 알 수 있다.

아직 OTT 저널리즘에 대한 분명한 정의는 없다. 미국의 언론학자인 마이클 섯슨은 저널리즘을 '일반 대중이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당대 현

안에 대한 활동, 실행, 또는 정보를 생산하거나 확산하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여기에 OTT를 붙여 본다면, OTT 저널리즘은 'OTT 플랫폼을 활용해 공중에 게 공적 관심을 알리고 확산하는 행위'라고 조작적 정의를 내릴 수는 있겠다.

### 'OTT 저널리즘, 있다'

OTT(Over the Top) 서비스인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나는 신이다>는 사이버 종교에 대해 기존 언론과 다른 파격적인 장면을 담으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마찬가지로 웨이브에서 서비스되는 <국가수사본부>도 경찰이 피의자를 심문하는 장면까지 보여주면서 화제가 됐다. 두 작품 모두 지상파 TV인 MBC와 SBS에서 제작해 공급했는데, 기존의 다큐멘터리와 유사한 형식으로 시사 다큐멘터리라고 할 수도 있고, 탐사보도라고도 볼 수 있는 만큼 'OTT에서 공개된 시사 다큐멘터리나 탐사보도'라고 정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넷플릭스에는 <타이거 킹>이나 <웨이코: 아메리칸 아포칼립스>, <버니 메이도프> 같은 범죄 다큐멘터리가 상당수 서비스되고 있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작품들 역시 OTT를 통해 저널리즘을 구현하는 콘텐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OTT 저널리즘, 없다'

그럼에도 OTT가 저널리즘이라는 목적의식을 갖고 <나는 신이다>나 <국가수사본부>를 선택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해당 서비스의 성과, 즉 가입자 증가나 유지를 통한 수익성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선정했을 것이다. <나는 신이다>의 경우 선정적인 장면으로 화제를 끌어모은 점 때문에 '저널리즘으로 포장된 OTT'(매일경제, 2023.4.9.)라는 주장도 있다. 또한 OTT의 성격에 맞춰 제작했기 때문에 2022년 한국기자협회와 여성가족부가 펴낸

<성폭력·성희롱 사건 보도 공감 기준 및 실천 요강>에 따른 피해자 보호 관점이 부족하다거나, 사제들의 아동 성추행 사건을 다뤄 호평받은 영화 <스프라이트>에서와 같은 구조적인 접근이 부족하다는 등의 문제점도 남아있다.

### 지상파 저널리즘의 대응

OTT를 통해 유통된 두 콘텐츠는 모두 지상파 방송사에서 만든 작품이다. 그런데 왜 기존의 프로그램보다 더 화제가 되었을까?

대체로 지상파 방송에서 표현할 수 있는 수준보다 심의에서 자유로운 OTT 플랫폼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작품에 투여할 수 있는 절대적 시간의 차이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MBC 조성현 PD는 "〈피디 수첩〉 등은 8~10주 만에 빠듯하게 제작할 수밖에 없는데 반해, <나는 신이다>에는 2년의 제작 시간이 주어졌다"고 말했다. SBS 배정훈 PD도 "일반 프로그램 파일럿을 기획하는 데 3개월이 주어지지만, <국가수사본부>는 1년 정도 제작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OTT 저널리즘에 대응하기 위해 지상파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지상파 방송의 PD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소속되어 있는 방송사의 분위기와 심의 등으로 인한 자발적·공익적 책임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따라서 그 현실적인 제약 안에서 OTT와는 차별되도록 피해자 보호나 사건 발생의 원인 규명 등에 더 집중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사회 전체가 해당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지상파 방송사도 OTT가 프로그램별로 보장해주는 시간을 참고삼아, 아이টে에 맞춰 충분한 제작 시간을 배정하는 등의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OTT의 도전에 맞서 지상파 방송 고유의 저널리즘을 지속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단신



## “미래 세대와 직접 소통” 제3기 '1020 시청자위원' 30명 위촉

제3기 KBS '1020 시청자위원' 위촉식이 5월 26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에 뽑힌 30명의 '1020 시청자위원'은 3월 7일부터 한 달간 지원한 전국의 만 16~25세 남녀 135명 가운데 선발됐으며, 앞으로 6개월 동안 KBS 프로그램 모니터링과 미디어 교육 수강, 제작 현장 견학과 SNS 홍보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또한 <TV비평 시청자데스크>에 담길 브이로그(V-log)와 카드 뉴스도 직접 제작할 예정이다. KBS는 KBS에 대한 MZ세대의 솔직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1020 시청자위원'을 선발해 운용하고 있다.

계열사 소식

## 김동렬 PD, 제16회 한가람상 수상



김동렬 PD(시사교양1국)가 제16회 한가람상을 수상했다.

1994년 KBS에 입사한 김 PD는 <다큐멘터리 3일>, <소비자리포트>, <KBS 스페셜> 등을 연출하며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KBS의 PD 정신을 계승 발전시킨 점이 인정되어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가람상은 KBS 퇴직 TV PD들의 모임인 '한가람회'가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과 울림을 주고 KBS의 위상을 높인 PD를 선발해 주는 상으로 이번 시상식은 5월 18일에 열렸다.

## KBS 미디어, 영국 내셔널갤러리 명화전 공동 주관



국립중앙박물관과 내셔널갤러리 런던이 주최하고 KBS 미디어가 주관하는 '거장의 시선, 사람을 향하다-영국 내셔널갤러리 명화전'이 10월 9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된다.

한국과 영국의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영국 내셔널갤러리의 소장품을 국내 최초로 공개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보티첼리, 라파엘로, 렘브란트, 마네, 고갱, 반 고흐 등 서양 미술 거장들의 명화 52점을 만나볼 수 있다.

# ‘흑인 에리얼’은 문제가 아니건만... 〈인어공주〉 논란의 아쉬움



영국과 미국 의사 사이에서 가장 흔한 이름은 인도계인 ‘칸(Khan)’과 ‘파텔(Patel)’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영국 타임스지에 기사가 실린 게 이미 9년 전이고, 조금 더 검

색하면 ‘파텔’은 물론 ‘리(Lee)’와 ‘응우옌(Nguyen)’이 1970년부터 1989년 사이 태어난 미국 의사 중 가장 흔한 이름 5위 안에 든다는 자료도 찾을 수 있다. 10년 단위로 정리한 표 안엔 ‘김(Kim)’도 여러 번 등장한다. ‘리’는 그렇다 쳐도, ‘김’과 ‘응우옌’이 각각 한국과 베트남계 성씨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왜 술한 미국 의학 드라마나 영화 주인공은 여전히 백인 남녀 차지일까. 종종 너무 급진적이라는 비판을 받지만, 창작물에서 인종 다양성을 보장하라는 목소리는 이 같은 현실을 똑바로 반영하라는 담백한 요구다.

최근 개봉한 디즈니 실사 영화 〈인어공주〉는 주인공으로 흑인 가수 할리 베일리를 발탁하며 캐스

팅 단계에서부터 논란이 됐다. 빨간 머리와 하얀 피부가 특징인 원작 속 에리얼 역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베일리는 중요한 건 자신을 보고 기뻐하는 흑인 소녀들이라는 태도로 논란을 일축했다. 나와 같은 외모를 가진 인물도 공주가 될 수 있다는 걸 보며 아이들이 느낄 자신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어른들의 인종·성별 고정관념 등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미디어 속 재현 방식이 중요하다는 논리 외에 이모저모를 따져 봐도 흑인 인어공주가 문제일 이유를 찾기 힘들다. 에릭 왕자가 에리얼을 기억하는 핵심 요소가 외모가 아닌 목소리라는 점을 기억한다면, 베일리의 가창력이 너무 뛰어나 발탁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감독의 설명으로도 충분할 테다. 원작에서 바닷속을 장식하던 산호초와 물고기들이 모두 열대 바다의 것임을 고려하면, 지상 배경 역시 카리브해 섬나라로 설정한 점도 무리가 없다.

동양인 조수미가 ‘밤의 여왕’ 배역을 맡을 수 있고, 김주원과 강수진이 ‘지젤과 오데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흑인 인어공주’는 이상하지 않다. 정작 문제는 영화의 완성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데 있다. 83분짜리 원작을 135분으로 늘리면서 전개는 늘어지고, 지상 장면들은 맥이 빠진다. 더구나 디즈니 실사 영화들이 가진 고질적 문제는 그대로 반복된다. 눈, 코, 입을 단 채 사람처럼 말하고 표정을 짓



강푸른 기자의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

던 물고기 플라운더와 바다게 세바스찬은 실제처럼 구현되면서 매력을 잃는다.

내용 면에서도 영화는 ‘과도한 PC(Political Correctness : 정치적 올바름)’라는 비판이 따라다닌 것치고는 평범하고 안전하게 기존 줄거리를 따라간다. 불신을 거두고 남을 이해하지는 메시지는 ‘주제가 있다’는 것 이상의 의의를 찾기 힘들고, 주인공을 주체적인 인물로 만들기 위해 보탠 설정들도 뻔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7명을 모두 다른 인종으로 캐스팅했다는 이유로 비판받던 인어공주 자매들은 단 두 장면 등장하고 사라져 거슬릴 겨를조차 없을 정도다. 이처럼 실사판 〈인어공주〉가 택한 변화들은 ‘흠 잡히지 않겠다’는 의지는 강하게 느껴지는 데 반해 극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는 데 실패한다. 결국 남는 건 의아함이다. 흑인 인어공주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베일리는 이 생기 없는 영화의 몇 안 되는 장점에 가깝다. 보고 판단하라는 말 외에 더 보탬 말이 있을까.

## 안전한 사회를 꿈꾸는 세이프



김민철 재난미디어센터장



이 사진은 지난해 8월 8일 저희 집 지하 주차장에 발목까지 물이 차서 주민들이 나와 양동이와 대야로 물을 퍼내는 장면을 찍은 것입니다.

이날 서울 동작구에는 밤 9시 5분부터 1시간 동안 무려 141.5mm의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집중호우의 기준은 시간당 30mm입니다. 시간당 50mm가 넘으면 우리나라 웬만한 곳은 침수나 범람 피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당 140mm 넘게 왔으니, 저희 집처럼 지하 주차장이 침수된 곳은 부지기수였을 것입니다.

이웃분의 연락을 받고 차를 빼러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다가 이 광경을 보고는 처음엔 막막하더군요. 이럴 땐 무엇보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이나 모바일 앱 ‘안전디딤돌’을 보면, 호우주의보나 호우경

# 우리 동네 폭우 온 날... 지하 주차장 접근금지! 양수기는 꼭 챙겨두세요.

보 시 지하 주차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면 차량은 두고 즉시 탈출하고, 주차장으로 빗물이 들어오면 차량을 밖으로 이동하지 말고 몸만 탈출해야 합니다. 또, 경사로를 따라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차피 차량은 수압 때문에 움직일 수 없게 되므로 사람만 신속히 대피하고, 특히 차량 확인 등을 위해 지하 주차장에 진입하는 건 절대 금물이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저희 가족과 주민들은 즉시 지하 주차장을 벗어나 대피해야 했지만, 거꾸로 지하 주차장에 모여 초등학생인 아들과 딸까지 동원해 물을 퍼내는, 지금 생각해보면 위험천만한 일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다들 위 대처 요령을 떠올리지 못했고, 웬지 물을 다 퍼낼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한 2시간쯤 퍼내도 물은 별로 줄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주민분이 그 밤에 빗속을 뚫고 서울 시내를 뒤져 양수기를 사 왔습니다. 양수기를 작동시키자, 순식간에 물을 다 빼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처럼 양수기 한 대가 그렇게도 절실했던 집이 많았었다는 것은 일주일 뒤 또다시 많은 비가 왔을 때 알 수 있었습니다. 동작구청이 주민들에게 다음 사진과 같은 공지사항을 전파한 것입니다. 바로 ‘양수기 대여 문의’와 ‘빗물받이 관련 신고’를 할 각 주민센터의 연락처였습니다. 물론 전국의 모든 주민센터가 양수기를 빌려주는

양수기 대여 문의 및 빗물받이 관련 신고

동주민센터	전화번호
노량진 1동	02-815-1164
노량진 2동	02-812-0903
성도 1동	02-815-3084
성도 2동	02-814-3755
성도 3동	02-822-1005
성도 4동	02-820-2989
흑석동	02-815-1046
사당 1동	02-582-8582
사당 2동	02-820-2992
사당 3동	02-534-0040
사당 4동	02-585-0050
사당 5동	02-525-6076

건 아니겠지만, 장마철 침수 피해가 잦은 곳이나 저지대에 사시는 분들은 양수기가 매우 요긴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난방송을 하는 목적도 바로 이 같은 정보와 대처 요령을 적시에 알려

피해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지난해 9월 6일 태풍 ‘힌남노’때 포항 지하 주차장에서 7명이 사망한 참사가 있었는데, 지하 주차장 침수 시 대처 요령을 미리 충분히 알렸다면, 어땠을까요?

KBS는 지난해 집중호우 때 과연 ‘재난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나 구조나 복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재난방송 의무사항(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을까요?

돌아보면,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보다 더 정보값을 높인 재난 관련 콘텐츠를 만들어 방송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그리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의 재난방송을 보고 요긴한 정보를 얻고, 피해를 줄이고, 생명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 내가  
100년 뒤를 때까지 열지 말라셨잖아

# 가슴이 뻐다

KBS 월화드라마

## 폭염 식힐 좌충우돌 로맨스

6월 26일 첫 방송 예정인 <가슴이 뻐다>는 100년에서 단 하루가 모자라 인간이 되지 못한 반인 뱀파이어 선우혈(옥택연 분)과 인간미라고는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여자 주인공 원지안(원지안 분)가 어쩌다 함께 살게 되면서 '진정한 온기'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려낸 드라마다.

찢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뱀한 '냉혈 인간'으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주인공이 동굴로 들어가 썩과 마늘을 먹을 만큼 인간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 사연 많은 반인 뱀파이어 선우혈을 만나 따뜻한 인간으로 성장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펼쳐질 예정.

뱀파이어와 냉혈 인간의 사랑이라는 이색적인 설정과 두 주인공을 둘러싼 각양각색 특색 있는 캐릭터들이 펼쳐낼 좌충우돌 로맨스는 무더위가 시작되는 초

여름 밤 시청자들에게 청량감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아름다워>, <연모>, <안녕? 나야!>의 이현석 PD가 연출을, <애티는 로맨스>의 김하나 작가가 집필을 맡았다.

이현석 PD는 "인간이 되고 싶은 뱀파이어와 뱀파이어보다 더 뱀파이어 같은 인간이 사랑을 하면서 벌어지는 좌충우돌 로맨스는 어디서도 보지 못한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묵숨을 바친 사랑을 그린 이 드라마가 시청자들에게 가슴 설레는 이야기로 기억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 첫 방송 6월 26일 /  
매주 월~화요일 밤 9시 45분 **KBS**